

1930년대 백철 비평의 해석학적 연구*

남 송 우**

目 次

I. 머리말	VI. 백철 휴머니즘론에서의
II. 백철 비평에 대한 연구사	인간이해
III. 해석학적 방법론	VII. 맺는말
IV. 백철 비평에 나타나는 선이해	참고문헌
V. 백철의 현실해석력과 부단한	Abstract
변모추구	

I. 머리말

한국문학의 흐름을 사적으로 조명해 볼 때, 1930년대는 소위 문제적 시기로 명명된다. 1930년대를 두고, 그 앞 시기와 뒤의 시기에 논의된 문학과 발표된 작품수를 비교해 보더라도¹⁾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 이 논문은 199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수산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선영 편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한길사, 1990)에서 편자는 30년대 작품 수량은 20년대 보다는 3배가 훨씬 넘고, 40년대 보다는 2배가 넘으며, 심지어 50년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고, 문학론도 사실주의론, 풍자문학론, 고발문학론, 세대소설론, 휴머니즘론, 행동주의론, 주지주의론, 전통론, 문화운동론, 세대론, 순수문학론 등으로 어느 시대보다 다양하게 제기되었다고 평

때문이다. 그래서 1930년대 문학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폭넓게 진척은 되었지만, 총체적 모습을 제대로 재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기우고 메워가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겨져 있다. 장르적 측면에서 시, 소설, 희곡 등의 연구도 보완해 가야 할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특히 비평영역은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1930년대 연구에서 비평영역으로 그 연구범위를 좁혀보면, 크게 두 갈래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문학론 즉 비평이론을 중심한 30년대 비평의 체계화이며, 다른 하나가 비평가론을 통해 30년대 비평을 조망하는 일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작업은 1930년대 비평을 조감하기 위해서는 서로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지만,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비평가론에서 출발해서 문학론의 정리로 나아가는 것이 손쉬운 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1930년대에 활동한 비평가들에 대한 개별 연구는 1930년대 비평사를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1930년대에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임화, 최재서, 김환태, 김문집, 이원조, 백철, 김기진, 박영희 등을 두고 볼 때, 백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다른 비평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즉, 1930년대 비평에서 백철이 차지했던 당시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연구결과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1930년대 비평사 정리를 위해서는 백철 개인에 대한 연구가 우선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 지금까지 백철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피고, 다음 그의 비평론에 접근하는 연구방법을 모색해 본 연구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백철 비평을 해석학적 방법으로 해명하고자 하는데, 이는 해석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이해와 세계해석을 위한 방법적 모색이한 비평가의 세계해석과 인간이해의 방식을 살피는데 유효한 방법이 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백철에 대한 연구사를 개관함으로써 본격적인 백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가한다.

II. 백철 비평에 대한 연구사

비평가로서의 백철에 대한 논의는 그가 한창 활동하던 1930년대에 이미 있었다. 즉 안석주, 임화, 박영희, 정비석, 新山子 등이 당대 백철의 비평활동과 관련해서 총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논의는 본격 백철 연구라기보다는 백철 인간 면모에 대한 인상이기 주조를 이루고 있다.²⁾

이후 한효(『조선문예비평사의 일면』, 《우리문학》 2호)와 조연현(『우리나라의 비평문학』, 《문학예술》 3권 1호)에 의해 비평사적 입장에서 백철의 비평세계가 단편적으로 다루어졌으며,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임중국의 『친일문학론』(1966)과 홍사중의 『한국지성의 고향』(1966)에서 언급되고 있다. 『친일문학론』에서는 일제의 국책문학에 야합하여 활동한 그의 친일문학론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지성의 고향』에서는 백철의 사실수리론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백철 문학론의 어두운 부분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백철의 전반에 대한 본격연구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윤식의 『비평과 열정-백철론』(『청과문학』 7집, 1967)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격 연구라고 하지만, 이 논문에서도 백철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목록 제시, 백철 연구의 방향설정이 주요내용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여기서의 논의 내용 역시 백철 연구의 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윤식은 이를 토대로 그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1973)에서는 백철 비평의 세계를 전형기의 구조탐색을 위한 하나의 논의인 휴머니즘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백철의 인간탐구론의 실질적 내용과 특성을 휴머니즘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해명해 내고 있다. 백철의 인간론이 처음에는 인간묘사론의 형태로 제기되었고, 또 그것은 프로문학과 부르조아문학의 종합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인간묘사 쪽에 기울어지고 있었다³⁾고 본다. 그리

-
- 2) 안석주, 「투계가튼 백철, 박세철씨」, 조선일보. 1933. 6
 임 화, 「동지 백철군을 논함」, 조선일보. 1933. 6. 16-17
 박영희, 「현역비평가의 군상-문장으로 본 그들의 인상」, 조선일보. 1936. 9. 2
 정비석, 「작가가 본 評家: 백철」, 풍림. 1937. 5
 新山子, 「현역평론가 군상-속문단지리지」, 조광. 1937. 3
 3)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p. 218.

고 일단계는 <기존비평과 감상비평의 결합>이며 이단계로는 리얼리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파악하며, 이는 부르와 프로의 종합을 한 몸에 담아 주류 형성을 시도한 것이지만 바탕의 허약으로 각종 모순을 빚게 되었다⁴⁾고 평가한다. 이러한 백철 인간묘사론에 대한 평가는 당시의 백철 비평의 비중을 그만큼 크게 인식한 결과이며 백철을 전형기 비평의 한 주도자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김윤식의 관심은 백철이 제기한 인간묘사론 나아가 인간탐구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단의 주된 논의로 부상하게 된 휴머니즘 논의이다. 백철이 이 논의의 중심위치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로 통해 많은 논쟁이 빚어졌기 때문에 휴머니즘론 속에서 백철의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휴머니즘론에서의 백철과 김오성의 변별점, 백철의 논의에 대한 임화의 비판, 휴머니즘 토착화의 한계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정리결과로 김윤식은 휴머니즘론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만큼 문단의 관심사가 되었기에 전형기 비평의 선구를 이루기는 했지만, 비평의 기능으로는 심정적인 것이었다⁵⁾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김윤식의 백철에 대한 비평가적 정리는 1930년대 비평에서 백철이 차지하는 위치를 자리매김해 주는데는 선구적 작업이었으나, 백철 개인의 총체적 면모를 살피는데는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런 한계점을 의식했는지 김윤식은 앞선 백철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오랜 뒤에 「임화와 백철」(《한국문학》 '89년 3월-5월호)에서 이 두 사람의 당시 관계를 작가론의 입장에서 재구성함으로써 백철의 인간면모를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광수, 염상섭, 임화, 김동인, 이상, 안수길, 김동리 등의 작가론을 남긴 김윤식의 입장에서는 백철에 대한 완성된 비평가론도 기대해 볼 만한 남겨진 과제의 하나이다.

이후 백철에 대한 연구는 신동욱의 『한국현대비평사』(한국일보사, 1975), 조연현의 『문학논쟁집』(태극출판사, 1977), 홍문표의 「한국현대문학논쟁의 비평가적 연구」(양문각, 1980), 김상일의 「한국문학평론약사」(어문각, 1981), 권명민의 「1930년대 초기의 농민문학론」(온누리, 1983), 이주형의 「1930년대 한국장편

4) 김윤식, 같은 책, p. 218

5) 김윤식, 같은 책, p. 233.

소설연구」(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4) 등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백철 연구가 김윤식 연구 이후에 본격화 되기 힘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문학연구에서 연구대상은 그의 문학적 생애가 완결되었을 때 본격화 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5년 백철이 타계한 전후로 백철 연구가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주요한 연구로는 박용찬의 「1930년대 백철 문학론 연구」(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와 김재홍의 「백철의 생애와 문학」(《문학사상》, '85년 11월호) 그리고 백철이 재직했던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펴낸 『어문논집』에서 백철 교수 추모특집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이명재의 「백철문학연구서설」과 김종대의 「1930년대 휴머니즘논쟁에 대한 고찰」이 실려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의 내용을 통해 백철 연구의 전개상황을 살핀다.

박용찬은 「1930년대 백철문학론 연구」에서 백철의 비평활동을 카프시대의 문학론과 카프해산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구분의 근거는 카프의 공식적 해산이 백철의 문학론 전개과정에서 볼 때 중요한 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다.

<카프시대의 문학론>에서는 농민문학론, 해외문학과 및 순수문학과 비판, 창작방법론, 전향론 등을 다루고 있다. 농민문학론에서는 당시 안함광이 주장한 농민문학론보다 한 걸음 진전된 형태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창작방법론에 있어, 백철은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과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 나아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개하는 업적을 남겼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조선현실에서 구체화 시키지는 못했다고 보고, 그 이유를 새로운 외국이론의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백철의 체질문제와 그가 카프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⁶⁾ 백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전향론에서는 그의 전향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가 백철의 자유주의적 기질과 과잉된 정열의 표면화, 둘째 코뮌리즘을 하나의 철저한 사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토피아로 선택한 점, 셋째 가족주의로의 회귀 및 사회주의로부터의 고립감을 들고 있다. 결국 백철의 전향은 외적 강제에 의한 타

6) 박용찬, 「1930년대 백철문학론 연구」,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 44.

율적 측면보다는 자기성장에 따른 사상의 굴절이란 자율적 측면이 더욱 긴밀히 작용하고 있다⁷⁾는 해석이다.

이러한 백철 문학론에 대한 해명은 앞서 논의된 창작방법론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측면이기에 그의 창작방법론 변화와도 관련지어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즉 창작방법론에 있어 백철이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개하는 업적은 남겼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조선현실에 구체화 시키지는 못했다고 보고, 그 원인의 하나로 그의 체질문제와 백철의 전향요인으로 제기된 자유주의적 기질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 백철의 면모인지 다른 측면인지가 연속선상에서 제대로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프해산 후의 문학론>으로는 휴머니즘론, 리얼리즘론, 장편소설의 방향 모색, 사실수리론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사실 30년대 백철 문학론의 중심은 휴머니즘론인데, 박용찬은 백철의 휴머니즘론의 출발을 「현대문학의 과제인 인간탐구와 고뇌의 정신」(조선일보, 1936.1.12-21)으로 보고, 이후에 제기된 「문예왕성을 기할 시대」(중앙, 1936.3), 「문학의 성립 인간으로 귀환하라」(조광, 1936.4), 「인간탐구의 문학」(사해공론, 1936, 6) 등에서 그의 휴머니즘론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현대문학의 과제인 인간탐구와 고뇌의 정신」에서는 프로메테우스적 고민 또는 고뇌의 길만이 새로운 인간형을 탐구하는 유일의 血路로 보고 있음에 대해 박용찬은 이것이 당시 위기에 처한 정세 앞에서 작가가 처할 자세문제를 논한 것으로 30년대 후반의 폭넓은 리얼리즘 논의의 선구에 서게 되었다⁸⁾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정말 백철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인간형 탐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던가 하는 평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점차 악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적극적 인간형의 제시보다는 내면화 된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이원조가 「고민론」(조선일보, 1936.6.3-4)에 이어서 <포즈론> 「현단계의 문학과 우리의 포즈에 대한 성찰」(조선일보, 1936.7.11-17)을 통해 문학의 출구

7) 박용찬, 같은 논문, p. 58.

8) 박용찬, 같은 논문, p. 64.

를 찾아보려고 한 상황과 동케이기 때문이다.

카프해산 이후의 백철 문학론에서 박용찬이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항목은 <장편소설의 방향모색>이다. 백철의 휴머니즘론에 가려 백철의 장편소설론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장편소설론은 임화의 본격 소설론, 김남천의 로만개조론과 함께 백철의 종합문학론이 제기되었는데, 백철은 「종합문학의 건설과 장편소설의 현재와 미래」(조광, 1938.8)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백철이 말하는 종합문학론은 시, 단편, 희곡, 수필, 일기, 논문까지 다 포함한 작품으로서의 장편소설을 제기하고 그 예로 지이드의 「위폐제조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백철의 장편 소설론에 대해 박용찬은 위기 타개를 위한 문제제기는 의의가 있었지만 실현이 힘든 이상론에 그치고 말았다⁹⁾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30년대말 백철이 「시대적 우연의 수리」(조선작품연감, 1939) 이후 그가 일체의 국책문학을 수용하는 과정을 사실수리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박용찬은 1930년대에 국한해서 백철이 전개해 온 문학론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리 체계화함으로써 백철 한 개인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혀주었다. 즉 백철 문학론이 지닌 의의를 프로문학 비평이 지닌 정론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점, 예술비평을 열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 침체기의 평단에 뚜렷한 논점을 제공한 점 등으로 정리함으로써 백철 문학론을 정리하는데는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시선이 문학론 자체의 현상을 분류 체계화 하는데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학론의 근거를 이루는 백철 개인의 정신사적 맥을 잡는 부문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백철의 사후에 발표된 백철 연구로는 이명재 교수의 「백철문학연구 서설」(『어문논집』 19집,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5)과 김종대의 「1930년대 휴머니즘 논쟁에 대한고찰」(『어문논집』 19집,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5), 그리고 김재홍의 「백철의 생애와 文學」(《문학사상》, 1985년 11월호)이 있다.

이명재 교수는 「백철문학연구서설」에서 백철의 문학적 활동과 업적 등을 그의 삶의 역정과 연결시켜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다. 즉 철저한 역사전기적 방법에 의해서 백철의 전반적 면모를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그가 우선 관심한

9) 박용찬, 같은 논문, p. 90.

것은 백철의 성장과정과 문학적 연보를 작성하는 일이다. 여기서 그는 백철의 문학적 연보를 유소년시절-학창수업기, 청년시절-프로문학기, 장년시절-전향활동기, 완숙시절-문학사서술기, 노년시절-국제문화교류기, 노후시절-노후정리기 등으로 6단계로 설정하고 있다.¹⁰⁾ 이를 바탕으로 이명재 교수는 백철문학의 특징을 휴머니즘 추구의 문학, 변증법적인 삶의 문학, 세계적인 시공지향의 문학으로 그 특징을 짚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백철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부각시키고 있는 입장이어서, 백철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이나 한계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 논문의 성격이 백철 교수의 사후에 쓰여진 추모 논문이란 점에서 이미 그 한계를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전거적 연구방법을 통한 백철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이후 백철 연구자들에게 주는 정보적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다.

김종대의 「1930년대 휴머니즘 논쟁에 대한 고찰」은 1930년대 휴머니즘논쟁 중 백철의 휴머니즘론을 중점적으로 다룬 글이다. 휴머니즘론의 발생, 전개, 그리고 휴머니즘론의 전개와 동양적 풍류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 논문의 핵심은 휴머니즘론의 전개와 동양적 풍류성과의 관계에 놓인다. 결국 백철이 왜 휴머니즘의 토착화를 위해 동양적 풍류성을 주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정신사적 전이과정의 논의가 필요한데, 이 글은 이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백철의 휴머니즘론이 탁상공론화되어 버린 이유를 이론만의 추구 혹은 단편적인 외국이론의 수용에다 두고 있어¹¹⁾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면밀하지 못함을 당장 읽어낼 수 있다.

김재홍의 「백철의 생애와 문학」(《문학사상》 '85년 11월호) 역시 백철 사후에 바로 문예지에 발표된 글이기에 그렇게 심도있는 논문은 되지 못한다. 김재홍 교수는 백철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적영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명재 교수와는 달리 그는 백철의 문학적 생애를 다섯시기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즉 학창수업기(1908-1930), 문단데뷔기(1931-1934), 전향활동기(1935-1937), 친일방황기(1938-1945), 문학사 연구기(1945-1985) 등으로 나누고¹²⁾ 그의 비평이

10) 이명재, 「백철문학연구서설」 『어문논집』 19. 1985, p. 20

11) 김종대, 「1930년대 휴머니즘 논쟁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19. 1985, p. 43.

신념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항상 새로운 것, 강한 것의 편에 서기를 좋아했다는 점에서 약점이 드러나고 있긴해도 그가 남긴 흔적으로 보면, 이 땅 비평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비평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백철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꼼꼼한 백철 비평 읽기 후의 논의가 아니라 저널적 시각이기에 좀 더 백철 비평을 따져 읽은 후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박용찬의 본격 연구 이후에 보이는 백철 연구에 대한 논의는 김기한에서 나타난다. 김기한은 「백철의 30년대 비평 연구」(전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에서 문예비평사의 확립을 위해서는 작가 개인사가 제대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백철의 비평문학을 다루고 있다. 그는 백철의 문학관을 <전향>을 기준으로 그 전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데, 이는 <전향>이 백철 비평의 흐름으로 보면 정신사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향> 이전의 비평은 프로문학의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다시 크게 나누어 외부적인 것은 프로문학의 출현을 경계하는 것과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시선을 두지 않는 문학집단에 대한 비판을 들고 있다. 내부적인 것으로는 30년대의 농민문학론과 창작방법론, 인간묘사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안함광과 논쟁을 야기한 농민문학론은 일본의 藏原과 壺井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백철이 일본 NAPF에서 겪은 논쟁의 과정과 결과를 농축하여 정제된 이론으로 제공함으로써 <카프>의 무모한 에네르기 발산과정을 축소시킨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¹²⁾

그리고 창작방법론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인간묘사론에서는 작품의 표현형식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향> 이후의 비평론에서는 <인간탐구론>, <휴머니즘론>, <종합문학론>, <친일문학론>으로 나누어 해명하고 있다. 인간탐구론을 통해서 작가가 지녀야 할 태도로 <고민>, <개성>, <극단> 등을 들어 구체적인 창작태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으며, 휴머니즘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휴머니즘을 우리나라의 전통적 맥락 속에

12) 김재홍, 「백철의 생애와 문학」, 《문학사상》 '85년 11월호, 1985, p. 129.

13) 김기한, 「백철의 30년대 비평연구」, 전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수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종합문학론을 통해서도 당시의 소설문단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으로, 친일문학론에서는 그의 사실수리론과 전쟁문학론을 통해 일제에 동조하는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각각 살피고 있다.¹⁴⁾

그러나 김기한의 1930년대 백철비평 연구는 전향을 전후해서 백철의 정신사적 맥을 통해 문학론을 점검해 보았다는 점 외에는 박용찬의 백철연구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진전된 부분은 없다. 오히려 연구대상의 폭과 깊이는 좁아진 편이다. 그래서 김기한 자신도 백철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기대하고 있다.

90년대로 넘어오면 류은량의 백철연구가 눈에 띈다. 류은량은 「백철의 문예비평 연구」(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에서 백철의 비평적 역정과 그의 전체적인 비평에 나타나는 비평관의 흐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백철의 비평배경과 비평관>, <백철 비평의 주요 전개양상>을 논쟁사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류은량은 백철비평의 역정을 초기(1931- 1934), 중기(1935-1942), 말기(광복이후-1985)로 나누어 살피고 있는데, 이런 역정에 따라 백철은 문학의 현실대응력을 농민문학론에서, 문학적 주체의 의미탐색을 인간 묘사론과 인간탐구론 그리고 휴머니즘론에서, 비평적 안목의 작품화를 세대론에서, 그리고 광복 이후 민족문학론에서 세계문학으로의 추구를 각각 제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따라 그의 비평관도 분석-감상-종합의 순서를 거쳐왔다¹⁵⁾는 입장으로 그의 비평관을 파악하고 있다.

류은량은 이렇게 백철비평의 흐름을 논쟁사 중심으로 파악하여, 그의 비평사적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문학현실을 포착하는데 항상 남보다 앞선 저널리스트 비평가였다는 점, 둘째, 외국, 외래사조를 현실에 성급하게 끌어들이려 끊임없는 논쟁을 유발했다는 점, 셋째, 두 차례의 전향이 있었으나 두번째 전향은 역사의식이 확고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는 점¹⁶⁾ 등이다. 이상과 같은 류은량의 백철문예비평 연구는 백철의 비평을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그의 전생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그가 백철의

14) 김기한, 같은 논문, p. 63.

15) 류은량, 「백철의 문예비평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28.

16) 류은량, 같은 논문, pp. 70-71.

해방 이후의 문학론을 민족문학론으로 획일화하는 부분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90년대 접어들어서 백철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비평사를 다루는 데서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정영호의 「1930년대 문예비평관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속의 백철연구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 정영호는 1930년대 비평가 중 김환태, 김문집, 임화, 최재서, 백철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의 비평관을 그들이 중심으로 터잡고 있던 문학관을 중심으로 해명하고 있다. 정영호는 백철이 인간묘사론에 이어 제기한 휴머니즘론을 통해 그의 비평관은, 그가 문학을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닌 가장 선하고 고귀한 인간성의 계발과 함양에 두고 있는 르네상스 이후의 휴머니즘론과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에서, 문학이 인간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효용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¹⁷⁾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백철의 비평관 해명은 휴머니즘론과 문학의 효용론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더 심화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정영호의 연구처럼 90년대에 들어서면, 백철연구는 1930년대 비평사를 다루는 가운데서 휴머니즘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930년대에 있어 백철의 문학론의 중심은 휴머니즘론이기에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런데 백철의 휴머니즘론을 인식하는 방법이, 70년대에 김윤식이 30년대 비평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김윤식은 전형기 비평의 한 양상으로 그리고 주조탐색의 한 방향으로 휴머니즘론을 인식하여 체계화 하고 있지만, 하정일은 「30년대 후반 휴머니즘논쟁과 민족문학의 구도」(『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1990)에서 계급적 인식을 바탕으로 휴머니즘논쟁을 해석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정일이 이 논문에서 30년대 휴머니즘논쟁을 읽어내는 독법에 있어 모랄론, 지성론, 포즈론 등까지도 결국 휴머니즘론의 파생 결과¹⁸⁾라는 입장은 김윤식 교수가 이미 파악한 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 그런데 하정일이 휴머니

17) 정영호, 「1930년대 비평관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 61.

18) 하정일, 「30년대 후반 휴머니즘논쟁과 민족문학의 구도」,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1990, p. 686.

즘 논의를, 중간파의 문단 주도를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각의 차이 혹은 새로운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하정일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민족문학의 논리를 세워본다는 인식하에서 30년대 비평논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며, 휴머니즘론 논쟁 이전의 카프가 내세운 문학론이 당시로서는 민족문학의 근간이며 주조였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정일은 백철을 중간파 휴머니즘론을 대표하는 주자로 임화와 안함광을 휴머니즘론에 대한 프로문학측의 대표주자로 구조화 하고 있는 것이다.¹⁹⁾ 이런 구도 속에서 백철의 휴머니즘론을 정리 비판하면서 내린 결론은, 백철의 휴머니즘론은 개인적으로 인간묘사론-인간탐구론에서 이어지는 이론적 귀결점인 동시에 해외문학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자유주의적 휴머니즘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그것은 30년대 후반의 민족문학을 바라보는 중간파 문학인들의 기본관점을 반영하고 있다²⁰⁾고 보았다. 그래서 하정일은 백철의 휴머니즘론을 한 마디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하고, 중간층 계급을 기반으로 한 탈정치적이고 지식인 중심적인 문화주의의 한 표현으로서, 소시민적 지식인의 동요성을 정당화 하고 프로문학의 퇴조를 틈타 중간파 문학의 해체모니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하정일의 백철 휴머니즘론의 해석과 평가는, 당시 안함광이 휴머니즘론을 철저히 중간계급의 문학론으로 규정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 그 시각은 현재적 의미의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지나간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재구하는 실증적 연구방법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방법론의 새로움에 의해 대상을 새롭게 보는 작업 역시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영민 역시 한국문학비평을 논쟁사 중심으로 체계화 하면서, 백철의 휴머니즘을 사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김영민은 「파시즘에 대한 저항과 휴머니즘이론 논쟁」(『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에서 193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휴머니즘 논쟁은 창작방법론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후는 국제작가회의와 제7차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적 문단상황에의 영향으로 시작된 논의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19) 하정일, 같은 책, p. 695.

20) 하정일, 같은 책, p. 705.

창작방법론과 관련한 백철의 휴머니즘 논의는 「창작방법문제」에서는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론을, 「인간묘사시대」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주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¹⁾ 그리고 이러한 백철의 입장에 대해 함대훈과 임화의 비판을 정리하고 있으며, 안함광의 「인간묘사론 시비에 관하여」가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백철이 제기한 인간묘사론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가장 명쾌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짚어낸 글로 평가하고 있다.²²⁾ 김영민의 판단에는 안함광이 백철의 문학론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그가 관념론자이며 그의 인간묘사론이 비역사적·초역사적·초계급적 이론임을 임화나 함대훈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35년 이후의 백철의 인간탐구는 국제작가회의에서 주창된 휴머니즘 문학론의 본질을 직시하기보다는 이를 단지 그 용어상의 유사성을 빌미로 과거 자신의 인간묘사론을 부활시키는 일에 활용했다²³⁾고 평가한다. 그래서 백철의 인간탐구론은 문학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분리, 정치성과 사회성으로부터 문학의 독자성 옹호, 외부의 불순한 조건에서 벗어난 순수한 인간성의 탐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고 해명한다. 백철이 이런 입장에서 자신의 휴머니즘론을 펼쳐가고 있었기에 서구 휴머니즘론의 전개가 지닌 파시즘에 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들의 규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었고, 이 휴머니즘론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작 복고주의적인 「동양인간과 풍류성」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²⁵⁾고 본다.

그래서 김영민은, 결국 백철은 「지식계급론」 「휴머니즘의 본격적 경향」에서 현대휴머니즘이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은 지성과 육체가 서로 상반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인간이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다고 본다. 즉 현실묘사에서 복고주의로 다시 현실안주로 돌아온 것이 백철 휴머니즘의 여정이란 것이다.²⁶⁾ 이런 연유로 백철은 결국 식민치하의 지배세력과

21) 김영민, 「파시즘에 대한 저항과 휴머니즘 논쟁」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p. 462.

22) 김영민, 같은 책, p. 468.

23) 김영민, 같은 책, p. 479.

24) 김영민, 같은 책, p. 473.

25) 김영민, 같은 책, p. 491.

의 조화를 현실로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영민이 휴머니즘 논쟁을 다루면서, 다른 논자들과는 달리 인식하고 있는 내용은, 백철의 휴머니즘 여정을 현실묘사-복고주의-현실안주라는 흐름의 맥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다. 백철의 문학을 통해 그의 정신사적 내면을 현실 대응의 측면에서 이렇게 구조화 하고 있는 것은 백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백철의 현실대응력의 구조화는 그의 정신사적 추이가 문학과 함께 충분히 논의될 때 완벽한 모습으로 재구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 백철비평문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전반적으로 개관해 보았다. 개관에서 나타나듯이 백철이 비평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 우선 지적된다. 백철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비평사 연구가 아직까지 그렇게 두텁지 못하다는 점도 있으며, 그 동안 우리 비평문학연구가 어느 한 쪽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연구사 개관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백철비평문학에 대한 연구는 70년대 김윤식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 연구대상에서 백철은 한 동안 배제되어 있다가 다시 본격논의가 되기 시작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백철에 대한 연구는 이제 겨우 역사전기적 방법에 의해 그의 연구대상 비평목록들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30년대 휴머니즘론의 논의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백철의 문학생애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일과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그의 면모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남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아직 단선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백철의 문학적 행로를 다층적으로 읽어내는 몫이 백철 연구자들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Ⅲ. 해석학적 방법론

본고에서는 앞서 연구사에서 확인한 바대로 백철의 연구가 정신사적 측면에

26) 김영민, 같은 책, p. 503.

서 정리될 필요가 있기에 그의 비평론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명해 보고자 한다. 즉 백철 비평이론의 기초가 된 이론이나 사상, 그리고 그들의 비평론을 해석학적 관점²⁷⁾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해석학은 언어표현에 담겨진 의미의 이해를 다룬다. 즉, text 해석의 방법론에 관계된 영역이다. 성서, 역사적 기록, 옛날의 법전, 문학작품은 모두 언어로 표현된 text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text는 인간으로부터 현실 또는 역사 속에서 생겨나고 현실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달된다.

그러나 언어표현의 의미는 언어 자체로부터 모든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언어표현의 의미는 그 역사적 원천으로부터, 역사적 사고, 형식과 표현방법 등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 객관적 이해의 방법으로서 해석학이 필요하게 된다.

해석학은 초기에는 문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해석이론이었으나, 그 후에는 작품의 시대와 관련되는 언어에 대한 지식, 작품에서 유래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 언어의 문체적 특성, 작품이 쓰여진 구체적 상황과 작가의 본래의 의도 파악, 전체적 원문과 관련한 개별적 해석²⁸⁾ 등을 요구하는 이해의 기술이론으로 발전²⁹⁾한다.

27) 문학비평의 한 방법론으로서 해석학적 방법론이 몇 사람에 의해 시도 되기도 했다. 원형갑의 『해석적 비평』(문예비평론, 서문당, 1982), 백운복의 『해석학적 비평의 이론과 실제』(현대문학비평론, 학연사, 1981), 고위공의 『해석학과 문예학』(서린문화사, 1983)등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원용하고자 하는 해석학이란 이러한 비평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이 아니라 해석학 이론 자체의 원용이다. 해석학이 그 동안 성경해석학이나 경전의 해석을 위한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이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인문과학의 방법론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해석학을 이해할 수 있는 번역서나 논저들이 늘어가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알빈디머, 백승균 역, 『철학적 해석학』(서울: 경문사, 1982), 리차드 E. 팔머, 이한우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문예출판사, 1988), 조셉 블라이히, 권순홍 역, 『현대해석학』(서울: 한마당, 1983), 에머리히 코레트, 신귀현 옮김 『해석학』(서울: 종로서적, 1985) 에릭 D 허쉬, 김화자 역, 『문학의 해석론』(서울: 이대출판부, 1988), 데이빗 호이,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비평』(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피드까지』(서울: 박영사, 1987), 김용옥, 『절차탁마대기만성』(서울: 통나무, 1986)

28) 에머리히 코레트, 신귀현 옮김 『해석학』, (서울: 종로서적, 1985), pp. 3-5참조.

그런데 문학비평은 문학의 해석 자체이거나 문학작품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므로, 문학비평을 해석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고, 문학비평 자체도 문학에 관한 언어표현이므로, 문학비평에 관한 연구도 해석학적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다.³⁰⁾ 이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문학비평의 연구는 연구되는 문학비평의 작품이해에 관한 해석학적 관점을 고찰하는 것과, 문학비평 자체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석 활동에 포함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지만, 이것을 단순화시

- 29) 현대 해석학의 흐름은 크게 세가지 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문과학의 방법으로서 해석에 관한 일반이론의 문제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실라이에르 마허, 딜타이, 베티, 허쉬로 이어지는 해석학 이론(hermeneutical theory), 둘째는 방법적인 절차를 사용하며 객관적 지식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과 시간성의 차원에서 인간 현 존재의 현상학적 기술과 설명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하이데거, 가다머로 이어지는 해석학적 철학(hermeneutic philosophy), 셋째는 해석학이론이나 해석학적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 관념론적 전제를 비판하고 방법론적이며 객관적인 접근방법을 실천적으로 관련된 지식에 대한 추구와 결합시키는 아펠,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비판적 해석학(Critical Hermeneutics)이다. 그런데 첫째의 해석학적 흐름은 해석의 객관성을 강조하여 올바른 해석과 그렇지 못한 해석을 내세우며 해석의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해 저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살려 해석의 객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둘째의 해석학적 방법론에 기대고 있는 자들은 해석자의 주관성이 배제된 객관적 해석이란 불가능하다고 보아서로 상충된 입장을 보인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베티와 가다머, 그리고 가다머와 허쉬의 해석학적 논쟁이다. 그리고 세번째 비판적 해석학은 관념적 전제를 비판함으로써 유물론적 해석학의 길을 뛰어 놓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있어 해석학은 부정되었으나 비판적 해석학이 제기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도 해석학의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 흐름을 선명히 대조시켜 주고 보다 폭 넓은 틀 속으로 이 세 지류를 종합해 보려는 한 흐름이 구문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리피르의 현상학적 해석학이 있다.

조셉 블라이허, 권순홍 역 『현대 해석학』, (서울: 한마당, 1983), pp. 8-13 참조.

데이빗 호이,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비평』,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pp. 15-17참조. 리차드 팔머,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88), pp. 98-99참조.

- 30) 데이빗 호이는 『해석학과 문학비평』에서 해석학이 인간탐구의 모든 분야에 이해와 해석이론을 적용하려 하지만, 각 분야마다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문학연구 분야는 해석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문학비평과 해석학이 그만큼 동일시 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데이빗 호이,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비평』,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p. 19.

키면, 해석의 주요 요소는 해석의 대상인 작품과 해석의 주체인 해석자로 구분된다.³¹⁾ 그러므로 비평의 해석학적 연구에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은 해석의 대상으로서의 작품과 작품을 해석하는(비평하는) 주체인 해석자(비평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원래 해석되는 작품과 해석하는 주체는 분리되어 있다. 더구나 작품과 해석자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언어적 차이가 있을 때, 두 존재 사이의 거리가 더욱 멀어진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의 비평에서 있어서나 문학 작품의 비평의 연구에 있어서 작품과 해석자 또는 해석자(비평가)와 연구자 사이의 거리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석학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은 각각 작품의 의미에 대한 상이한 기본 가정에 근거를 둔다. 하나의 접근 방법은, 작품을 외부 세계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객체로 보며, 작품의 의미는 해석자와 관계없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 기초를 둔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를 두는 해석학 이론은 작품의 부분들이 전체와 관계가 있으므로, 부분들로부터 다른 부분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부분적인 의미들로부터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 이론은 문헌학적, 문법적, 심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재구성하려고³²⁾ 한다.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작품의 의미가 해석자에 따라 다양하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다. 해석자는 특정한 작품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그의 현실적 상황에서 역사적 전통으로부터 이어 받은 선이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선이해는 모든 이해의 근원³³⁾이다.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은 선이해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으나, 개인마다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과정이 다르므로, 모든 해석자의 선이해는 동일할 수 없고, 시대와 사회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에 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같은 작품의 의미가 해석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작품 해석자로서의 비평가는 작품의 의미를 작품 자체의 언어표현으로부터

31) 조셉 블라이허, 권순홍 역, 『현대해석학』, (서울: 한마당, 1983), p. 68

32) 조셉 블라이허, 같은 책, pp. 70-71

33) 이규호, 해석학적 지식론, 『앎과 삶』, (서울: 연세대학교, 1972), pp. 69-71참조.

해석하려는 태도³⁴⁾, 작품의 의미를 해석자의 현실적 역사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려는 태도³⁵⁾ 중에서 어느 한 가지 태도를 취하거나, 이 두 극단적인 태

- 34) 이러한 입장의 해석태도는 허쉬의 해석이론이 대표적이다. 허쉬가 해석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게 된 것은 해석의 타당성에 관심을 들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의 문제작 『Validity in Interpretation』에서 그는 정당한 해석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작품해석에 있어서의 상대주의가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 위험성이란 작가의 의도는 단일하나 작품의 의미는 다양하게 이해·해석되고 있음에서 오는 해석의 혼란을 말한다. 그래서 허쉬는 타당한 해석을 위한 방법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해석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객관주의적 관점으로서 타당한 해석을 위한 방법론을 작가의 의도와 관련성에서 찾으려는 이해와 해석의 주된 관심사이며, 이를 위해 작품의 의미(meaning)와 의의(significance)를 구분하는 데 있다. 즉 이해와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을 철저하게 작가의 의도의 산물로 본다. 그래서 그는 일단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 혹은 해석이 담당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작가가 의도한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해석자는 작품의 의미에만 매이지 않고 각자 나름의 작품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허쉬이론의 난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허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와 해석이고, 각자 해석자가 작품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의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한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단일하지만, 그 의미 또는 그 텍스트의 어떤 성질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허쉬는 작품의 의미와 의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해석의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며, 그것은 해석 주체보다는 해석대상인 작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해석 태도이다.

김용권, 「E.D. Hirsh의 해석론」, 《세계의 문학》, '83년 가을호, (서울: 민음사, 1983), pp. 69-77 참조.

E.D. Hirsh, 『Validity in Interpret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67), p. 8.

David Couzens Hoy, 『The Critical Circ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 51.

- 35) 이러한 해석 태도는 가다머의 해석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허쉬는 작품해석에 있어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의미와 의의를 구분하고, 특히 의미파악에 있어서도 그 과정을 이해와 해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다머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가다머는 이러한 이해와 해석의 구분은 단지 추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입장은 모든 이해는 바로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서 있다(Alles Verstehen ist Auslegung) 즉 모든 이해는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해는 해석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투시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가다머의 입장은 허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온

도 사이의 무수한 중간적 태도 중에서 어느 한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밝힌 이 연구의 목적을 바로 위의 논의와 관련지어서 말하면, 이 연구의 목적은 백철의 1930년대 비평론을 선이해의 측면과,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느냐 하는 점, 그리고 그의 휴머니즘론 속에서의 인간이해와 해석을 중점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백철의 정신사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IV. 백철 비평에 나타나는 선이해

한 비평가의 비평론이나 실제비평은 언제나 자신이 이미 체득한 문학적 이해에 기초하며 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비평가의 비평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선이해를 파악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백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1930년대 전환기 비평의 한몫을 담당했지만, 그의 비평논리와 실제 비평은 그가 학습한 문학적 정보나 선이해한 문학론에 의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백철 비평세계의 이해를 위해 그의 선이해를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백철의 경우는 1927년부터 1931년까지 일본동경사범학교 영문과에서 유학한 외국문학 전공자였기에, 그가 일본에서 학습한 문학적 선이해는 그의 비평논리에 상당한 바탕을 형성했다.

당한 하나의 해석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해석은 과거와 현재의 지속적인 고려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문학작품의 해석을 저자의 의도나 각자 당시의 시대상황을 통한 이해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가다머는 텍스트의 의미의 재인식은 해석자 자신의 역사성에 의해서 제약되며, 해석자에 따라 새롭고 상이한 것이며 원저자의 의미의 재인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텍스트의 의미를 확정짓는 저자의 전권을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가다머의 입장은 미국의 신비평의 반의도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작품에 나타난 텍스트란 작가의 주관성의 표현만이 아니라, 본문의 의미는 해석자와 대화를 갖게 될 때 나타난다고 본다. 그래서 해석자의 상황은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자는 해석적 경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열린 마음의 상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82), pp. 321-325 참조.

그런데 백철의 선이해는 일차적으로 일본이란 공간에서 체득할 수 있는 소위 동경문단이 그에게 끼친 요소와 그가 전공한 외국문학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래서 그의 비평논리 속에 나타나는 선이해를 동경문단의 요소와 외국문학적 요소로 나누기보다는 주요한 문학적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백철이 발표한 평문 중에서 국내에 발표된 공식적인 글은 「농민문학론」(조선일보, 1931)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선이해의 한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백철은 이 평문에서 농민문학과 프로문학이 중국에 가서는 일치될지 모르나 현단계에서는 빈농의 문학, 혁명적 농민의 이데올로기를 내용으로 하는 문학이 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러시아에서는 농민문학을 동맹문학 이하의 것으로 생각한 대신에 일본서는 농민문학을 직접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보아왔다는 입장에서 일본의 농민문학의 논리를 끌어 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농민소설론』에서 立野信文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취재의 범위는 특색적으로는 두 가지 광범위한 세계 즉 노동자 세계나 농민 세계로 나뉜다...云云. 또한 요미우리 신문에서 黒島傳治는 농민문학을 말 할 때에 그것을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병립시켜서 대항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학 내의 일 분야이며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小林多喜二도 《중앙공론》에서 우리들이 농민문학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프롤레타리아란 점에서 농민을 취급한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아니 하였으나 中野重治는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농민문학과의 관계를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민족문학과의 관계와 같이 보면서 형식은 민족적이나 내용은 프롤레타리아적이다 라고 한 데서 그도 최근까지 농민문학을 프로문학으로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³⁶⁾

농민문학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立野信文, 黒島傳治, 小林多喜二, 中野重治의 개념들을 빌어와서 이를 백철 자신의 농민문학론 전개에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농민문학론에 대한 선이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문학의 귀착점을 논하면서도 柴田私雄이 <납프>에서 말한

36) 백철, 「농민문학론」 『백철문학전집』2, 신구문화사, 1968. p. 36

「이 혁명적 빈농의 욕구와 이데올로기의 위에서는 문학 - 이러한 문학은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³⁷⁾는 논지를 끌어들이므로써 그의 농민문학론 전개에 밀바탕은 일본 농민문학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조선문단에서 활발하게 농민문학론을 재창해온 안함광의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에 입각한 기계적 좌익적 농민문학론을 넘어서는 논지전개는 中野中治의 관점에 힘 입은 바 크다. 그래서 백철의 농민문학론은 결국 中野重治의 논설을 그대로 가져와 조선현실에 적용해온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³⁸⁾ 것이다.

이렇게 백철의 농민문학론이 일본의 농민문학론의 선이해에 기대고 있음이 드러나지만, 그의 「창작방법론」(조선일보, 1932)에서도 이러한 선이해는 나타난다. 창작과 계급분석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백철은 다니모토 기요시(谷本清)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작문제에서 어떤 의미로 계급분석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들이 묘사하려고 하는 세계는 무엇보다도 계급사회라는 것이며, 그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적 모멘트라는 것이 가장 중심 문제인 까닭이다. 진정으로 정당한 계급분석이 없는 곳에 사회적 및 인간적 현실성에서 프롤레타리아 작품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³⁹⁾

谷本清의 논지에 따라 백철은 「창작방법론」(조선일보, 1932. 3. 9)에서 정당한 창작적 방법에 의하여 명확한 프롤레타리아 작품이 제작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확한 구체적 계급분석을 통하여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이 일정한 작품을 대상하여 그것을 검토하며 평가할 때에는, 그 작품의 근저에 구체적 내용이 되어 있는 복잡한 사물 및 그의 온갖 관계가 유물변증법적으로 파악되며 인식되어 있다는 말은, 그 작품의 주요한 테마가 정당적확한 계급적 분석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에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까닭이기⁴⁰⁾ 때

37) 백철, 같은 책, p. 43

38) 박용찬, 「1930년대 백철문학론 연구」, 경북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84. p. 30

39) 백철 「창작방법론」, 『백철문학전집』2, 신구문화사, 1968. p. 15

40) 백철, 창작방법문제, 조선일보, 1932. 3. 9

문이다.

그래서 백철은 유물변증법적 방법에 입각해서 작가들이 작품을 창작해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듬해에 소련작가동맹에 의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제창되자 백철은 다시 「문예시평」(조선일보, 1933)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주장하고 나선다. 이런 연유로 해외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문예이론을 생겨나는 대로 집어다가 조선문단에 이식하려 한다⁴¹⁾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그의 선이해는 바로 자신의 논지를 세우는 직접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백철의 「농민문학론」이나 「창작방법론」의 논의를 두고서, 우리는 그의 문학론이 일본문단이나 외국문학론의 선이해에 상당히 기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1930년대 백철 문학론의 중심에 놓이는 휴머니즘론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백철의 휴머니즘론은 「인간묘사론」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인간탐구론」과 본격 휴머니즘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는 「인간묘사론」 나아가 「인간탐구론」을 펼치면서 외국문학론을 그의 선이해로 두고 있다. 「인간묘사론」에서 그는 과거의 작품들 중에 위대한 작품으로 성공한 것들은 언제나 인간을 그 시대와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전형화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 근거논리로 러스킨의 논지를 인용하고 있다.

시인이나 역사가임을 불문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전혀 그 자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과 그들은 작품적인 큰 수확을 그들의 시대에서 거두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변함없는 사실이다. 단테는 13C의 이탈리아에서, 초오서는 14C의 영국에서, 마사초오는 15C의 플로렌스에서, 토티는 16C의 베니스에서이다. 그들은 언제나 생생한 그 시대의 진리에서 모든 것을 거두어 온 것이다.⁴²⁾

이렇게 백철은 시대와 그 시대전형의 인물형 창조를 논한 러스킨의 논지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인물의 창조가 문학이 추구해야 할 제일의 덕목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즉 인간묘사가 문학의 본론인데도 불구하고 현대문학에서는,

41) 채만식, 「작가로서 평론을 평함」, 조선일보, 1934. 2. 16

42) 백철, 「인간묘사론」 『백철문학전집』2, 신구문화사, 1968. p. 78

그것이 부르조아 문학에서는 발할 것도 없고, 현대의 진보적인 문학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문학도 이 인간묘사를 등한시하거나 처음부터 인간 본체를 왜곡해서 쓰든가 하는 인간부재의 문학현상을 비판하는 논거로 삼고 있다.⁴³⁾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묘사를 통한 진실한 휴머니티의 추구가 실현될 때, 제2의 휴머니즘 시대가 도래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그의 휴머니즘에 대한 선이해는 근원적으로 역사상의 르네상스에까지 펼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백철의 「문예부흥을 望想할 時代」(동아일보, 1934.9)에서 드러난다.

나는 다만 전부터 제기해 오던 인간묘사론, 인간탐구론의 속편으로서 이 논고를 쓰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허두부터 르네상스론에서부터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근년에 생각해 오고 있는 상제의 논제 등과 관련하여 그 르네상스 이야기가 나의 논지를 전개하는데 유력한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⁴⁴⁾

그래서 백철은 현대가 황무지라고 형용할 정도로 비인간화되어 있기에, 현대인 모두는 참다운 인간독자를 동경향수하려 하며, 여기에 새로운 인간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새로운 인간탐구의 전형으로 그리이스,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형을 제시한다. 백철의 생각에는 당시의 암흑한 현실 속에서 문학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방향은 인간상실에 대한 반향과 새로운 세기적인 인간의 탐구라고 보았고⁴⁵⁾ 그 한 모형을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형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백철의 휴머니즘론에서 확인되는 그의 선이해는 이렇게 먼 역사적 사실에도 기초하고 있지만, 가깝게는 당시 일본문단과 세계문단의 현대문예사조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백철은 당시 하나의 사조로 풍미하던 휴머니즘을 조선문단현실에서도 적극 수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문단만 하더라도 금년은 문단사조로서 모랄리즘과 휴머니즘의 일색으로써 해를 보낸 인상을 준 휴머니즘의 尙潮時代! 이를테면 세계적인 운분단의 주류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조선문단에서는 금년도까지 그 휴머니즘에 대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이 일년을 넘

43) 백철, 같은 책, p. 76

44) 백철, 「어둠 속의 문예시대」, 『백철문학전집』2, 신구문화사, 1968. p. 109

45) 백철, 같은 책, p. 120

기고 말았다. 마치 그것은 對岸의 불같은 것, 우리에게겐 직접 관계가 없다는
방관적인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오늘의 휴머니즘의 현대사조만은 그때마다 나
타난 외국문단의 신기성의 경향 같은 것과 달라서 우리 문단이 그대로 침묵
방관함으로써 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닌 것 같이 본다. 무엇보다도 우
리 문학을 더 한층 확고한 기본 자세로 재건하기 위해서 이 휴머니즘의 도
입은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의 시대성 그 자체
가 역사적으로 휴머니즘을 일으키는 필연의 의미가 있다는 현실성 이전에
문학은 본시 확고한 인간옹호의 정신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문학이 민족사적인 환경론에 보더라도 특히 그 인간옹호의 입장을 고수해
왔어야 할 터인데 실세에 있어선 그렇지 못하고 항상 표면적인 시사성에 더
치중해 온 것은 그 주인공이 20년대 이래 우리가 주로 서구의 자연주의 사
조와 방법에서 또는 프로문학의 외면적인 경향성에서 일을 해온 때문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우리 신문학사의 천박성을 극복하고 그 뿌리를
더 인간적인 깊은 면에 내리기 위해서는 오늘 휴머니즘에 외면하지 말고 받
아들여 효용하는 것이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점에서 나는 우리 문단
을 향하여 휴머니즘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말할 것도 없
이 내 개인의 입장은 이 휴머니즘에 대한 친근감이 年來로 주장해온 인간옹
호론, 인간탐구론의 주제들과 일련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실에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휴머니즘이 우리 문학을 위하여 문학운동사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찰할 때에 먼저 말하다시피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
이라는 뜻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⁴⁶⁾

백철은 이렇게 서구의 휴머니즘이 조선에도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 개념을
세 갈래로 나누어 놓고 있다. 즉 러시아의 코뮤니즘적 휴머니즘과 독일의 국민
주의적 휴머니즘, 그리고 프랑스의 인테리겐차의 휴머니즘으로 나누고 조선문
단에 수용되어야 하는 휴머니즘은 오직 프랑스적 의미에서 지식계급의 입장에
선 휴머니즘뿐이다⁴⁷⁾라고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백철의 지식계급 중심의 휴머니즘론 제기는 1936년 6월에 런던에서
열린 제2회 국제작가대회를 보고, 현정세 속에서 지식계급의 역할과 시대적 사
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선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
백철은 「지식계급론」(조선일보, 1938.6.3)을 통해 지식인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그의 휴머니즘론은 유럽 및 일본문단의 논

46) 백철, 「현대사조로서의 휴머니즘」, 『백철문학전집』2, 신구문화사, 1968, pp. 134-136.

47) 백철, 「지식계급의 옹호」, 조선일보, 1937. 5. 25.

의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⁴⁸⁾ 외국문학 전공자로서의 선이해가 그의 휴머니즘론을 주도하게 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백철의 문학론에 있어서의 이러한 선이해는 일본의 横光和一의 순수소설론의 견해를 빌려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결합으로서 순수소설의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 소설론에서도, 동경에서 논의된 세계사론이나 협동체론 등에 힘입고 있는 사실수리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의 정신사와 관련시킬 때 빠뜨릴 수 없는 선이해의 한 대상이 지이드이다. 지이드에 대한 백철의 선이해는 그의 「작품평자의 변명」에서 지이드의 「도스토예프스키」론을 통해 주아주의적인 비평태도를 드러내는데도 나타나고, 인간묘사론과 휴머니즘 문학론을 연결시키는 「현대문학의 과제인 인간탐구와 고뇌의 정신」에서 금일문학의 중심과제는 새로운 인간형을 탐구하는데 있다는 지이드의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지만, 그의 전향과 부단한 논점의 변화와 관련해 볼 때 지이드가 성실하려는 일념에서 하나의 태도에서 다른 태도로 끊임없이 입장을 바꾸어 나간 정신사적 흔적과 백철의 변모 자취가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백철의 비평논리에서, 그의 선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비평논리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의 모든 비평론에서 선이해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백철뿐만 아니라 모든 비평가들이 지니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백철의 경우, 그가 외국문학 전공자였기 때문에 이는 다른 비평가들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면모이다. 그런데 그의 선이해는 그가 서 있는 현실 속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비판되어 성숙된 상태에서 자기화되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드러난다.

V. 백철의 현실해석력과 부단한 변모추구

백철은 1930년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비평론이나 문학론으로 일관한 비평가는 아니다. 그의 관심은 끊임없이 변했고, 그래서 그가 제기한 문학론도 일관성을

48) 박용찬, 앞의 논문, p. 68

통한 깊이의 추구보다는 다양한 관심이 폭넓게 지속된 모습을 보인다. 즉 농민 문학론에서 인간묘사, 인간탐구론 나아가 휴머니즘론 그리고 장편소설론에서 일제에 야합하는 사실수리론까지의 전개양상은 다채로운 양상을 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백철이 보여주고 있는 1930년대 비평적 행로가 지니는 의미이다.

즉 부단한 변모를 추구해온 백철의 근원적 사고구조나 세계관과 관련된 정신사적 해명이다. 이점이 근본적으로 해명되어야 백철의 체질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정신사적 변모과정을 그가 몸담고 있던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해 봄으로써 그의 정신사적 내면의 한 권을 읽어내고자 한다. 한 인간의 정신사적 움직임은 결국 그가 처해 있는 현실과의 대응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철의 문학적 행로로 볼 때, 그가 현실을 자기자신의 주체적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시기는 동경고등사범학교 시절로 볼 수 있다. 1927년에서 1931년까지 동경사범 시절이 계속되는데, 이때 이미 동경은 지식 청년층에서 아나키스트들의 허무주의적이고 퇴폐주의적인 풍조가 만연하고 있었고, 사회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시절이다. 이런 당시의 현실 속에서 백철이 일본 프로 시운동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던 「전위시인」의 동인이 되고, 이들의 해체 이후 「프롤레타리아 시인회」에 참가하고 이어 NAPF의 맹원이 된 사실은 그의 정신사를 해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즉 백철이 NAPF의 맹원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 그의 프로문학에의 경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사회주의의 물결이 지식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던 당시의 현실 속에서, 사회주의에의 경도는 백철 자신의 주체적 의지도 작용했겠지만 또한 당시의 현실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백철의 사회주의에의 경도를 주체와 세계(현실)와의 관계성 속에 놓고 볼 때, 백철은 현실에 압도된 상태에서 사회주의에 물들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래서 백철 자신도 당시 상황을 회고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의 감상적 공명을 기본적으로 드러냈던 시절로 떠올리고 있는⁴⁹⁾ 것이다.

49) 백철, 백철전집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25, p. 141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백철의 정신구조는, 그가 우선 민감하게 관심한 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을 통해 자기논리를 펼쳐가고 있는데, 그 현실을 해석하는 태도가 주체를 우위에 두기보다는 객관적 현실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비평가의 현실해석이나 문학현실 해석이 언제나 주체나 객체 사이의 대응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백철의 경우 그 관계의 설정비중에 있어 주체 우위보다는 현실적 상황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가 귀국한 후, 첫 평문으로 내놓은 「농민문학론」 논의도 이런 백철의 현실경도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당시 국내문단에는 농민문학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안함광의 수차에 걸친 농민문학론은 두드러진 것이었기에 안함광의 논지를 반박하는 논리를 펴으로써 당시 현실문단에 뛰어드는 현실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철의 현실경도는 현실감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현실의 속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백철은 현실을 늘 변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현실의 속성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백철의 현실감각과 현실경도의 정신적 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그에게 있어서는 전향이라 할 수 있다.

프로문학에 몸담은 백철이 프로문학 자체가 지닌 기계적 공식적 창작방법이나 태도에 반발하고 비판적 모습을 보인 것은 그 자체가 지닌 문제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백철이 세계를 보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하나의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심화 확대하는 삶의 모습보다는 새롭게 변화해가는 현실 속에서 그 변화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항상 남보다 앞서고자 했고, 이를 토대로 현실을 이해하려는 성급함이 있었던⁵⁰⁾ 것이다. 만일 백철의 삶의 방식이 하나의 신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전주사건으로 감옥체험을 한 후, 그는 더욱 자신의 프로문학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철은 전주사건에 연루되어 1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난 후, 그는 동아일보에 「비애의 城畵」를 발표하여 마르크스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백철의 전향은 내적으로 백철이 지

50) 류은랑, 「백철의 문예비평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p. 59

닌 근본적인 문학과 프로문학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조화롭게 만날 수 없는 점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당시의 현실문단 상황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했던 현실경도적 태도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즉 1935년 5월 21일 KAPF의 해산으로 문단의 현실상황은 급변해 있었고, 프로문학이 주도하던 문단은 이제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했다. 소위 전향기 시대로 진입해 있어 새로운 문학양상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백철이 인간묘사, 인간탐구로부터 시작한 휴머니즘론의 제창은 그러한 문단현실 상황 속에서의 문단주도로써 인식될 수 있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백철은 프로문학이 더 이상 현실적 의미를 펴기 힘들다는 현실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백철은 현실에 경도되어 현실적인 화제나 문제를 그의 논의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문단현실에 새로움을 제공했지만, 그가 현실문제를 해석하는 시선은 결코 주체적이지 못했다. 이런 모습의 한 전형을 30년대말에 그가 제시한 사실투론에서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한 시대의 현실이 우연적으로 도래되었는지 혹은 주관적으로 비위에 거슬리든지 간에 그것이 일차 우리 앞에 表象되고 定着된 이상엔 偶然은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고 객관적이란 것이다. 그 한에서 偶然은 다른 시대의 정상적 현실과 같이 한 시대에 존재할 권리를 가진 객관적 事實이라는 것이다.⁵¹⁾

백철이 말하는 한 시대는 당시 일제의 대륙침략이 시작된 이후의 현실을 말한다. 그런데 그 현실을 저항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객관적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의 대륙침략을 용인하는 발언 이상의 것으로 보기 힘들다. 그리고 이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현실을 우연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 인식력이다. 모든 현실이 다 필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에다 현실인식의 틀을 맞추는 것은 그의 현실인식 나아가 현실해석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즉 현실을 우연으로 보았을 때, 현실 속의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일관성 있는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는 힘들다. 이는 바로 하나의 일관된 세계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51) 백철, 「시대적 우연의 수리」, 소화 14년판 『조선작품년감』, p. 302

것이다.

이런 정신구조 때문에 백철은 신념화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해서 작품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프로문학에서 일찌감치 벗어나, 주어지는 현실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가는 논리를 펼쳐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백철의 현실인식 나아가 세계해석의 정신구조 때문에 그가 내세우고 있는 비평 체계도 프로문학비평에서 강조하던 하나의 일관된 신념체계를 요구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거부하고 개성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자신의 비평논리로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근년에 와서 내가 조그마한 비평체계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해온 것은 그 비평태도에 있어 될 수 있는 대로 심정적이고 감성적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에 주로 인간표사론 이전에 있어 비평에 대하여 취해온 태도, 될 수 있는 대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라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그때까지 내가 그 소위 변증법적 이해에 의하여 나의 빈약한 비평을 구하려고 노력한 것이 얼마나 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반역적이었는가를 깊이 반성한 곳에서 결정한 태도였다.⁵²⁾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기준과 명제 대신에, 의욕과 심혼과 감명을 통해 작품 세계의 혼란된 심연의 한 가운데 일약으로 뛰어들어서 무엇을 생생하게 붙잡으려는 백철의 비평체계는 결국 감상주의적 비평 나아가 인상주의적 비평태도와도 관계가 있다. 인상주의 비평의 세계인식 태도는 근본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대상이나 미적대상은 없다고 봄으로써 순간순간 그 대상의 미적 진실을 포착하는 것이 문제시된다고 본다. 이런 문학적 인식은 바로 세계인식 나아가 세계해석의 토대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백철의 부단한 변신은 현실 나아가 세계에 대한 이런 해석관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현실에 주체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현실대응을 해왔느냐 하는 점보다 변하는 현실을 쫓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주체가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그 현실을 넘어서는 자기인식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현실해석력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체적인 현실해석력을 견지하지 못하면 현실순응주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백철의 사실

52) 백철, 「과학적 태도와 결별하는 나의 비평체계」, 조선일보, 1936. 6. 27

수리론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백철의 현실이해와 그에 대한 자기대응방식을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진전해간 자기성실을 보인 비평가로 긍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신념을 문제 삼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VI. 백철 휴머니즘론에서의 인간이해

백철이 내보이는 선이해나 그가 부단히 추구한 문학론을 토대로 할 때, 그의 1930년대 문학론 중에서 비중을 두어야 할 부문이 휴머니즘론이다. 그러므로 백철문학론에서 가장 힘주어 해명해야 할 부문 역시 휴머니즘론이다. 그래서 그가 펼치고 있는 휴머니즘론의 전개과정을 해석학적 입장에서 살핀다. 휴머니즘론에서 그가 주시하고 있는 인간면모는 작품 속에서 구체화 되어야 할 인간의 모습이기기는 하지만, 이런 인간론의 제시는 그의 인간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백철의 휴머니즘을 해석학적 입장에서 해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백철이 그의 문학론에서 인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식하고 있는 것은 「창작방법의 문제」(조선일보, 1932)에서이다.

정당한 계급분석에 의한 작품은 그것이 대상하는 사물 또는 인간이 추상적 사물 또는 일반적 인간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계급적 조건에 제약된, 일정한 사회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다루어져 있어야 한다. 과거의 일반 부르조아 예술가들은 일정불변하는 인간성이란 것을 주장해 왔으며 또 현재도 그렇게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적 세계관에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예술에서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입지와 기준에서 인간을 대상하며 분석한다. 거기선 막연한 인간이란 문제시 되지 않는다. 오직 일정한 계급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있을 따름이다. 즉 인간적 본질이란 어떤 개개의 개인에게 內在해 있는 추상체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인간적 본질은 사회적 제관계의 총체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온다.⁵³⁾

백철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은 한 마디로 구체적으로 생활하고 있

53) 백철, 「창작방법론」, 『백철문학전집』2, 신구문화사, 1968, p. 17

는 인간이다. 그러나 그 인간은 일정한 계급적 조건에 제약된 인간상이란 점에서 유물변증법적 인간이해 나아가 철저한 계급분석과 프롤레타리아트적 관점에서 있다. 이는 백철의 인간이해가, 이 당시에는 마르크스 레닌의 계급혁명의 이념에 대한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급혁명론의 이데올로기 적용이 하나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인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에 있어 계급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실제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카프시 인집』의 시집을 읽고는, 그 속에서 진정하게 계급분석의 방법에서 씌어진 작품을 만날 수 없었다고 불평한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주제를 혁명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題材의 취급, 대중생활의 구체적 묘사들이 충실히 되어 있지 않아 진전된 프로문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⁵⁴⁾는 것이다.

이는 당시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프로문학에 대한 비판이면서 자신의 인간 이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백철이 관심한 인간은 계급적 인간이면서도 고정화되고 기계화된 관념 속의 인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있는 계급적 인간을 주창한 백철은 「인간묘사시대」로 오면 경향적 인간을 내세운다.

물론 그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무수한 인간은 막연한 인간이 아니고 시대성과 역사성을 띤 인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할 것은 경향적으로 묘사된 인간이라는 것이다.⁵⁵⁾

백철의 인간이해가 계급적 인간에서 경향적 인간의 묘사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대문학에서 인간묘사가 본론인데도 백철이 생각할 때, 부르조아 문학에서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문학에서도 인간묘사를 등한시 하거나 처음부터 인간본체를 왜곡해서 쓰든가 하는 인간부재의 문학이 되고 있기에 즐기차게 인간묘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느 작품이든 그 작품의 중심은 인간이다. 문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간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백철은 인간부재를 논하고 있는가. 작품에 인간은 등장하는데, 그 인간의 모습이 부르조아 문학에서는 단편화 되고 해체되어 미화화 되어 있는 반면, 프로문학에서는 인간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함으로 관념적이고

54) 백철, 앞의 책, p. 19

55) 백철, 앞의 책, p. 79

이데올로기에 도구화 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고정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공식화 유희화 된 죽은 인간들의 행렬이 작품 속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철의 <산 인간>이란 인간상의 제시는 사실 앞서 창작방법론에서 확인한 바 있는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인간상과 그렇게 멀지 않다. 산 인간의 일상적 모습이 생활하는 인간상이기에. 그래서 사실 「인간묘사론」에서 백철이 제기하고 있는 경향적으로 묘사된 인간의 모습 역시 계급적 인간 이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계급적 조건에 의해 제약받는 인간상에서 조금 구체화된 시대성과 역사성 그리고 경향성의 인간으로 그 모습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논리만큼 그 인간의 구체적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틀을 벗어나 살아 움직이는 산 인간상이란 범주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백철의 인간이해는 「인간탐구의 도정」에 오면 다시 전형적 성격의 인간형 제시로 나타난다.

또 하나 더 구체적인 것은 가령 그 현대문학에 형식상으로는 만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이름뿐이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묘사되어 있지 않다. 즉 그 시대 그 현실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그 인물들이 전형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 내 글의 악센트는 더 뒤의 전형성 이야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작품의 인물이 그 시대에 따라서 각각 일정한 시대적 내용과 전형적 성격을 가진 타입프로 생성하게 묘사되어 전형화 될 때에 비로소 인간묘사다운 인물창조는 이룩된다고 할 것이다.⁵⁶⁾

백철의 인간형 탐구가 일정한 계급적 제약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에서, 시대성과 역사성을 띤 경향적 인간, 그리고 현실의 구체적 상황 속의 전형적 인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인간형의 탐색을 위해서는 백철은 <개성과 집단>, <인간묘사와 자연묘사> 등의 항목을 통해 전형적 인간형이 어떻게 모색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형의 탐구를 위해 <사회적 조건>을 내세우고 있긴 하나, 백철은 여기서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윤리문제까지 당착해야 한다고 봄으로써 인간은 단순히 외부적 묘사와 추상적 개괄에 의해 전형적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면적 자기 열정에 의한 적극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며

56) 백철, 「인간탐구의 도정」, 『백철문학전집』2, 신구문화사, 1968, p. 85

그러한 인간이 적극적으로 현실에 정면하여 실천하며 행동하는 곳에 전형적 인간형이 확립된다⁵⁷⁾고 본다. 그리고 이런 인간은 근대 리얼리즘이 추구한 가정적 사생활의 인간도 아니며, 기계적 유형의 노동자도 아니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으로서 구질서에 대한 현실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의지에 의하여 행동하여 전진하는 행동적 존재로서의 인간임⁵⁸⁾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백철이 프로문학의 고정화된 공식적 인간형에 반발하면서 제시한 살아있는 인간형의 모색은 결국 행동하는 인간형까지로 나아간다. 그러나 「苦行의 文學」에 오면 그가 탐색하고 있는 인간형은 행동적 존재로서의 인간보다는 양심적인 고민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구체적으로 말하여 30년대 중반을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문학은 그 행동의 세계에서 백보 후퇴를 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반문이다. 무엇보다도 근년 56년간의 우리 작품들에서 주요한 인간형들을 고찰해 보면 내가 말하고 있는 후퇴의 대정세란 사실이 수긍이 될 것이다.⁵⁹⁾

백철은 지금의 인물형들이 전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후퇴는 다름아닌 그 인물이 지닌 행동성애의 후퇴란 점에서 백철이 지금까지 내세운 인간형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백철은 이런 변화를 문단정세와 관련시키면서, 그런 문단정세에 어쩔 수 없이 고민하며 사는 인간형을 제시한다.

그렇게 보면 이런 문단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이드의 새인간의 창조를 그대로 창작의 슬로우전으로 내놓는 것부터도 우리가 실감이 덜 느껴지는 비약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새로운 인간형보다 이 시대에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진실한 인간형일까 하는 것, 실제로 이 정세 속에서 고민적으로 사는 양심형의 인물들이 더 실감이 가는 우리 문학의 과제라는 것이다.⁶⁰⁾

그런데 백철이 제시한 고민형의 인간탐구는 그것 자체로서 완결된 인간형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과제를 가진다. 그래서 백철도 자신이 그 동

57) 백철, 앞의 책, p. 104

58) 백철, 같은 책, p. 105

59) 백철, 앞의 책, p. 130

60) 백철, 「고행의 문학」, 『백철문학전집』2, 신구문화사, 1968, p. 132

안 제안했던 인간묘사, 인간탐구의 과제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자신의 인간형을 현실 속에서 추구해 가고자 한다.⁶¹⁾ 그래서 그는 이후 「우리문단과 휴머니즘」(조선일보, 1936. 12.23-27)에서 본격적인 휴머니즘론을 통해 인간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백철은 휴머니즘론의 가장 큰 특징을 무규정성, 무한정성으로 규정함으로써 그의 인간이해의 불투명성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임화는 지식인의 부정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현실 속에서 인간형을 탐색해 내려고 했던 백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인간이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그의 휴머니즘론의 구체성 결여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동양인간과 풍류성」이다. 여기서 백철은 조선문학의 역사를 꿰어 흐르는 인도적 정신을 동양인간의 풍류적 전통에서 찾고자 했다.

근대조선문학이 풍류적 전통을 계승하지 못한 것이 조선문학이 윤택성을 잃고 빈곤해졌기에 풍류적 인간형의 탐구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고주의적 인간성 탐구는 「풍류인간의 문학」에서도 추구되고 있으나, 동양의 전통적 인간형은 풍류적 풍취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은, 당시 파시즘이 강화되는 현실로 보아 이는 공허한 논리일 뿐이었다. 결국 백철은 「지식계급론」에서 현대휴머니즘론이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은 사실의 세기, 이상시대에 맞는 인간, 지성과 육체가 서로 상반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인간이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현실에 저항하는 살아 있는 인간이 아니라,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형의 추구로 떨어져 버린다. 휴머니즘을 통해 진정한 인간형을 탐색했다고 하면, 그 당시의 상황과 현실에 순응하는 혹은 고민하는 인간형보다는 휴머니즘의 근본적인 정신인 인간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형의 탐구가 지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백철의 인간탐구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백철의 인간형 탐구는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인간형의 탐구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현실에 순응하는 인간형으로 귀착되고 말았다. 이는 백철이 탐구한 인간형의 한계이면서 1930년대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우리 비평의

61) 백철, 같은 책, p. 133

한계이기도 하다.

VII. 맺는말

지금까지 백철 비평 중, 1930년대의 비평론을 중심으로 그의 비평의 특징과 내용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명해 보았다. 그의 비평론에서 확인되는 사항 중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비평론의 전개는 거의 그의 선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전공이 영문학이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그의 체질적 삶의 태도에 기인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백철의 선이해에 바탕한 그의 비평론 제시로, 그는 단순히 외국의 새로운 문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대리인이라는 비판도 받게 되지만 당시 한국문단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문제제기로 문단을 이끌어 간 점은 비평사적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백철은 1930년대에 쉽없이 자기 비평논리를 펼쳐나간 비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비평논리는 일관된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다변화된 논 의들이다. 이러한 논리전개의 태도나 방식은 그의 현실인식 나아가 현실대응논 리와 밀접이 관련되어 있다. 현실이란 고정불변하는 대상이 아니고 늘 변화하 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부단히 변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백철은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하는 현실의 상 황에 따라 대응한 논리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의 비평론에서는 깊이보다는 폭을 만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말처럼 그의 비평을 저널리 비평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

셋째, 1930년대 백철 비평에서 중요한 주제가 휴머니즘론인데 여기에서 나 타나는 그의 인간탐구는 살아있는 인간형의 탐구가 심화 확대되기보다는 결국 현실 상황에 순응하는 인간형으로 바뀌고 있다. 즉 그의 인간탐구는 일정한 계 급적 제약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추구에서, 시대성과 역사성을 띤 경향적 인간, 그리고 현실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의 전형적 인간, 나아가 행동하는 인간형의 모색으로까지 나아갔다가는 고민하는 인간형, 그리고 풍류적 인간형에서 끝내

는 조화로운 지식인상을 내세움으로써 일제에 야합하는 인간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백철의 인간탐구 도정은 결국 그의 현실이해 나아가 해석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 그의 선이해를 한국현실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해석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백철이 1930년대 비평사에서 보인 한계이면서 외국문학이론을 뒤쫓는 비평가들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극복과제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백철의 정신사를 총체적으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1940년대 이후 그의 비평을 살피는 일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참 고 문 헌

(자 료)

- 193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 삼천리, 인문평론, 문장, 청색지, 카톨릭 청년
- 백철문학전집, 신구출판사, 1968.
- 백철문학자서전-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5
-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자료』I-V, 단국대출판부, 1981-2
- 김시태 편 『식민지 시대의 비평문학』 이우출판사, 1982

(국내논저)

- 강돈구, 이삼열, 송영배, 『해석학과 사회철학의 제문제』, 일서각, 1990.
- _____, 「해석학적 순환의 인식구조와 존재론적 구조」, 『한신대 논문집 제5집』, 1988.
- _____, 「보편적 해석학의 기초로서의 언어와 사유」, 『철학』, 24집, 1985
- 고위공, 『해석학과 문예학』, 서린문화사, 1983.
- 권영민, 「1930년대 한국문단의 휴머니즘문학론」, 예술문화연구 1집, 서울대예술문화연구소, 1991
- _____, 『한국민족문학론연구』, 민음사, 1988.

- _____,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 김기한, 「백철의 30년대 비평연구」, 전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 박영사, 1987.
- 김영희, 『비평의 객관성과 실천적 지평』, 창작과 비평사, 1993.
- 김용권, 「허쉬의 해석론」, 《세계의 문학》 제8권 3호, 1983.
- 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86.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 _____,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1992.
- _____, 「임화와 백철」, 《한국문학》, 1989년 3월~5월호.
- 김윤식, 김 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김재홍, 「백철의 생애와 문학」, 《문학사상》, 1985, 11월호.
- 김종대, 「1930년대 휴머니즘논쟁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19집 중앙대 국문과, 1985.
- 류은랑, 「백철의 문예비평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 박순영, 「해석학과 보편성의 문제-가다머와 하버마스」, 『철학』, 24집, 1985.
- _____, 「가다머 해석학과 정신과학의 방법론」, 『철학』, 24집, 1985.
- _____, 「하버마스의 해석학」, 『철학』, 12집, 1978.
- 박용찬, 「1930년대 백철문학론 연구」, 경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 백승균, 「해석학과 보편성의 문제」, 『철학』, 12집, 1978.
- 신경립, 『농민문학론』, 온누리, 1983.
- 신동욱, 『한국현대비평사』, 한국일보사, 1975.
- 신재기, 「한국근대문학비평론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오세영, 『문학연구방법론』, 이우출판사, 1988.
- 원형갑, 「해석학적 비평의 길」, 《현대문학》 6-4호, 현대문학사, 1960.
- 윤병노, 『한국현대비평문학론』, 청록출판사, 1982.
- 이규호, 『앓과 삶, 해석학적 지식론』, 연세대 출판부 교양총서, 1981.
- 이명재, 「백철문학연구서설」, 어문논집 19집, 중앙대 국문학과, 1985.
- 이선영,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1993.

- _____,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1990.
- _____,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세계, 1989.
- 이정복, 「가다머에 있어서 이해의 역사성」,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4권 3호, 1977.
- _____, 「가다머에 있어서 해석학적 방법과 이해의 문제」, 철학연구 제15집, 1980.
- _____, 「해석학에 있어서 이해지평의 역사」, 서양철학사 연구, 학문사, 1982.
- _____, 「현재와 이해-철학적 해석학 서설」, 한양대 인문논총 제12집, 1986.
- 장일조 「철학적 해석학의 본질」, 『신학연구』, 13집, 1973.
- 정명호, 「백철문학론」, 명지문학 제22호, 1995.
- 차봉희 편,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 최동호 편, 『새로운 비평논리를 찾아서』, 나남, 1990.
- 최윤식 외, 『하이데거에서 가다머로』, 조명, 1992.

(국외논저)

- 게오르크 포오러 외 공저, 박종성 옮김, 『성서해석학 입문』, 형설출판사, 1987.
- 그래엄 하프, 고정자 역, 『비평론』, 이대출판부, 1982.
- Anthony C, 씨슬튼, 권성수 외 역, 『두 지평』, 총신대학 출판부, 1990.
- D. C호이, 이경수 역, 『해석학과 문예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8.
- 梅原猛, 竹市明弘 편, 박상권 역, 『해석학의 과제와 전개』,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7.
- R. 불트만, 유동식, 허 혁 역,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1969.
- 알빈 디이며, 백승균 역, 『철학적 해석학』, 경문사, 1982.
- 조셉 블라이허, 권순홍 역, 『현대 해석학』, 한마당, 1983.
- 조셉 블레이처, 이한우 역, 『해석학적 상상력』, 문예출판사, 1989.
- J. P. 사르트르, 양원달 역, 『존재와 무』, 을유문화사, 1983.
- 조지아 원키, 이한우 역,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사상사, 1993.
- 코레트, 신귀현 역, 『해석학』, 종로서적, 1985.
- R. 팔머,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 포울 헤르나디, 최상규, 『비평이란 무엇인가』, 정음사, 1984.
- 피겔러, 박순영 역, 『해석학의 철학』, 서광사, 1993.
- 프랭크 렌트리키아, 이태동, 신경원 옮김, 『신비평 이후의 비평이론』, 문예출판사, 1994.
- 한국해석학회,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지평문화사, 1995.
- 허쉬, 김화자 역, 『문학의 해석론』, 이화여대 출판부, 1988.
- Cornelius Van Til, 『The New Hermeneutics』,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4.
- David Couzens Hoy, 『The Critical Circle』, University California press, 1978.
- E.D Hirsh Jr, 『The Aim of Interpretation』,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1976.
- _____,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Habermas, Jurgen, 『Erkenntnis and Interesse』, Frankfurt : Suhrkamp, 1968.
-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Cross Road New York, 1982.
- Hans Robert Jauss trans by Michael Shaw, 『Aesthetic Experience and Literary Hermeneutics』, University of Minnesotapress, 1982.
-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trans, J. Macquarrie and E. Robindon, New York : Harper & Row, 1962.
- Josef Bleicher, 『Contemporary Hermeneutics』, Routledge and Kegan paul, 1980.
- Joseph P, Strelka ed, 『Literary Criticism and Philosoph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3.
- Kurt Mueller-Vollmer Ed, 『The Hermeneutics Reader』, Basil Blackwell, 1985.
- Murray, Krieger, 『Theory of Criticism』, The Johns Hopkins press, 1976.
- Paul, Ricoeur, 『Hermeneutics and Huma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P. D. Juhl, 『Interpretation,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iterary Criticis

- m], Princeton University, 1980.
- Peter Szondi, Translation by Harvey, 『On Textual Understanding and Other Essay』,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Volume 15,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 Rene Wellek, 『Concept of Criticism』, New Haven, 1963.
- Richard E. palmer, 『Hermeneutic』,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9.
- Ricoeur, paul, 『The Model of Text : meaningful Action Considered as a Text』, Social Research, 38, 1971.
- Stachel, Gunter, 『Die neue Hermeneutik』, Munchen, 1967.
- Wimsatt, W.K. Jr. and Monroe Beardsley. Genesis : A Fallacy Revisited, 『The Disciplines of criticism : Essay in Literary Theory, Interpretation : and History』, ed, Peter Demetz et al,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68.

Abstract

A Hermeneutical Study of Baek Cheol's Literary Criticism of the 1930s

Nam Song-Woo

This paper is designed to investigate Baek Cheol's literary criticism of the 1930s in the light of hermeneutic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

First, Baek Cheol's literary criticism is based on his knowledge of English and foreign literary criticism he studied in Japan.

Second, Baek Cheol was very active in developing his theory of literary criticism in the 1930s. But Baek Cheol's theory of literary criticism was so inconsistent that his literary theory was attacked by many critics. This critic's growing tendency to change his critical attitude resulted from his sensitive response to changing realities of society.

Third, Baek Cheol's humanism started with the idea of vital and tough human beings as an ideal type, but later he adapted himself to the change of environment, accepting a human type going with the current of times.